유리건판, 북한 불교문화재를 말하다

국립중앙博 · 미술사연구회 '유리건판' 주제 학술대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선총독부가 촬영했던 유리건판 사진은 근대기 문화재 모습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은 조선총독부가 우리나라의 고고, 미술, 건축, 역사, 민속 등과 관련된 유적과 유물, 현장을 담은 유리건판 3만 8170장을 소장하고 있다. 특히 지금은 볼 수 없는 북한 내 불교문화재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같이 일제강점기에 촬영된 유리건판 사진에 나타난 북한의 불교문화재를 분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미술사연구회와 공동으로 11월 27일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을 통해 본 한국미술사'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유리건판을 중심으로 북한 불교 조각 · 회화 등을 분석하는 논문들이 발표됐다. 정명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은 유리건판으로 촬영된 북한 불교 회화를 분석하며 평안북도 영변 보현사의 '수충사(酬忠祠)'에 현액된 서산 · 송운 대사 진영을 주목했다. 정 연구관에 따르면 1909년 촬영된 유리건판에는 서산 대사와 함께 승병장으로 활약했던 사명 · 뇌묵 대사도 함께 봉안돼 있었다.



개성 용흥동 화장사 '지공화상좌상' 유리건판 사진. 한국에는 희귀한 고승 초상 조각이다.



보현사 '서산대사 진영'의 모습. 임제종 무상 대사와 함께 봉안돼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일제 촬영 유리건판 통해
北 불교 조각 · 회화 분석
망실 · 새 도상 찾을 자료
도갑사 불상군 조사하니
조계사 불상 연관성 높아

하지만 일제가 작성한 〈보현사재산대장〉에는 서산 · 사명 · 뇌묵 대사와 함께 일본 임제종의 승려 무상 대사 진영이 봉안돼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조선 왕실의 사액으로 만들어진 수충사에 일본 임제종 묘심사파 개조인 무상의 진영이 봉안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연구관은 "유리건판과 일제 문서는 식민지 상황에서 불교문화재에 대한 인식과 일본불교 유입의 한 측면을 전해준다"고 밝혔다.

북한지역 불교 조각을 분석한 허형욱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은 유리건판의 활용 가치로 현존하지 않고 망실된 상에 대한 기록이자 도상 연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사료라고 평가했다.

실제, 함경남도 안변의 석왕사는 태조 이성계가 퇴위 후 머물기도 했던 왕실 관련 사찰이다. 석왕사의 응진전에는 조선시대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여래좌상, 보살입상, 오백나한상이 봉안돼 있었으나 한국전쟁 당시 전소돼 유리건판으로만 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허 연구관은 "북한 불교 조각 연구의 어려움 중 하나는 실물 접근 제약과 한국전쟁 등으로 다수의 사찰과 문화재 소실됐다는 점"이라며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 중인 일제강점기 기록은 북한 소재 불교문화재의 파손 이전 모습을 알 수 있게 하는 중요 자료"라고 평가했다.

또한 남한에는 없는 새로운 도상을 이해하는 데도 유리건판은 도움을 준다. 개성 용흥동 화장사의 '지공화상좌상'의 경우 우리나라에 흔치 않은 승려 초상조각이다. 인도 왕자로 알려진 지공화상은 고려에 들어와 1326년 3월부터 1328년 9월까지 머물렀다.

허 연구원은 "이 유리건판의 조각상은 지공을 형상화한 초기작으로 연원을 알려준다"면서 "현재 해인사 희랑조사상, 부석사 의상대사상 정도밖에 전하지 않는 고승 조각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유대호 조계종 행정관이 도갑사 불상군 유리건판을 분석하며 조계사 목조불좌상 조성시기를 조선 초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지 '코로나&불교' 언론문화상 우수상 수상

조계종, 12월 4일 시상식… 대상엔 BBS '서릿달동안거'

코로나19 확산 이후 본지가 기획 보도했던 '코로나&불교' 연속 시리즈가 제28회 불교언론문화상 신문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원행)은 12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제28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제28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서 본지 김주일 편집국장(사진 오른쪽)이 상을 수상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 본지는 '코로나&불교' 연속 시리즈 보도로 신문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본지는 올해 초부터 코로나 이후 불교계가 나아갈 방향을 분석하는 일련의 기획 기사와 코로나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콘텐츠를 소개하는 정보성 기사를 특집 기획 형태로 연속 보도했다.

5월 27일 부처님오신날 특집호에 게재된 '포스트코로나 & 불교'는 코로나 시대에서 불교의 상황을 진단하고, △사찰 · 재정 △수행 · 전법 △복지 · 마음케어 △기후변화 · 환경 분야서 불교가 어떻게 대응할 지를 살폈다.

9월 30일 본지 창간26주년 특집호에는 '코로나19 이후 불교계 변화'를 주제로 불교계 오피니언 리더 100인(출가자 50인 · 재가자 50인)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특집 기획으로 제작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법장 스님,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박재현 신대승네트워크 소장 등 전문가 3인과 함께 불교계 언론 최초로 언택트 대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치사를 통해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상황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방송 및 미디어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한 해였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아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전해주는 작품을 많이 접하게 된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종단은 언론인 여러분들의 노력에 부응 · 소통하고 지원해 많은 국민들이 내 삶의 주변에 불교가 있음을 일깨울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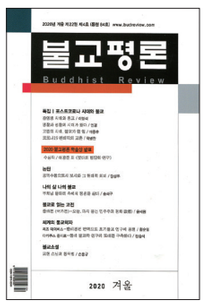
이날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에는 BBS의 '서릿날동안거'가 수상했다. 방송부문 TV최우수상에는 KBS다큐멘터리 '매혹의 실크로드' 4부작이, 라디오최우수상에는 BBS의 '코로나19 극복발원 BBS 8시간 특별 생방송 아름다운 보시'가, 우수상에는 BTN의 '그대에게 이르길 운성입니다'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문부문 최우수상에는 불교신문의 법정 스님 열반 10주기 특별기획 '무소유의 향기를 찾아서'가 이름을 올렸으며, 뉴미디어 부문 최우수상에는 유튜브 '불로잡생'과 한마음선원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마음꽃TV'가 수상했다.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포스트코로나 불교방향 진단

〈불교평론〉 84호서 특집 다뤄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불교의 접점을 조명한 계간지가 나왔다. 불교평론(주간 홍사성)은 통권 84호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불교'를 특집으로 다뤘다. 이번 특집 관련 논문으로는 △감염병 시대와 종교(이영석) △명상과 성찰의 시대가 왔다(인경 스님) △고립의 시대, 불교가 할 일(이종우) △코로나19 펜데믹의 교훈(곽병찬)이 게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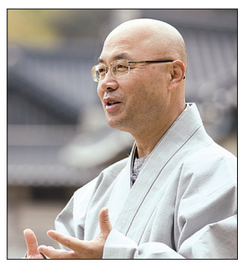
동방대학원대 교수 인경 스님은 '명상과 성찰의 시대가 왔다'는 발표를 통해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성찰을 위한 조건을 만들었을 뿐이지 구체적인 구도의 동기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번뇌로부터 내적인 거리두기를 의미할 때, 구도형 종교로서 불교는 명상과 성찰을 제공해 우리 공동체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불교평론 논단에는 △공덕수행으로서 보시와 그 현대적 의미(장성우)가, 나의 삶 나의 불교에는 △부처님 울타리 속에서 평생을 살다(송석구)가, 불교로 읽는 고전에는 △플라톤 '국가록' -오늘, 다시 묻는 민주주의 정체(윤세원)가 실려 눈길을 끌었다. 세계의 불교학자 소개에는 △리즈 데이비스-빨리경전 번역으로 초기불교 연구에 공헌(황순일) △다카쿠스 준지로-현대 불교학 연구의 토대를 구축하다(정승석)'가, 불교 소설에는 △묘현 스님의 창작법(손홍규)이 담겼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금강 스님, 문화유산 유공자 대통령 표창

12월 8일 시상식… 미황사 대웅전 벽화 복원 등 공로



해남 미황사 대웅전 천불벽화와 응진당 나한벽화를 복원하는 등 20년 동안 미황사 불교문화유산 보존에 힘써 온 금강 스님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은 12월 8일 열리는 '2020년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시상식'에서 대통령상 표창을 수상한다.

스님은 미황사 주지로 2001년부터 20년 간 재직하면서 불교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을 통해 미황사를 전남 대표 사찰 중 하나로 일신시켰다.

실제 금강 스님은 '보물 제947호 미황사 대웅전'의 천불벽화와 반자의 문양들을 복원했으며, '보물 제1183호 미황사 응진당'의 나한벽화를 복원 · 보존하기도 했다. '보물 제1342호 미황사 괘불탱'을 복원 · 모사하고, '미황사 괘불재'를 매년 가을에 봉행해 해남 땅끝마을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토록 했다.

신성민 기자

포교원 찬불가 율동영상 배포

"부처님이 좋아요""부처님을 사랑해" 등 온라인 법회 콘텐츠로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지홍)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포교활동에 진력하고 있는 전법중심도량 및 전국사찰과 불자들을 위해 신나는 찬불가 율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

포교원은 11월 30일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율동영상을 공개하고, 율동참여 어린이 불자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에 제작된 영상은 온라인 플랫폼 활용 매뉴얼 제작과 함께 진행된 사업으로 사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진행됐다.

제작된 영상 콘텐츠는 종단 홈페이지 포교자료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유튜브 공식채널'과 '키즈붓다'를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노덕현 기자

통도사 화엄산림 대법회 華嚴

입재 | 2020. 12. 15 |화| ~ 회향 | 2021. 01. 12 |화| 장소 | 설법전



동참금 영가 1위당 2만원
생축 10만원

문 의 기도접수처(화엄전) www.tongdosa.or.kr
Tel. 055)381-1288 Fax. 055)372-7010

• 법사스님 법문은 오전에만 이루어집니다. •

입재	월요일 ▶ 토요일	일요일	회향
불공 오전 10시 법문 오전 10시 50분	불공 오전 10시 법문 오전 11시	불공 오전 09시 30분 법문 오전 10시 20분	불공 오전 09시 법문 오전 10시

•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법성게 기도가 봉행됩니다. • 매주 일요일에 천도재 봉행합니다.

교통편
대중교통 부산 노포동 종합터미널 | 울산 시외버스터미널 | 동대구 성남고속터미널
승 용 차 경부고속도로 통도IC 통과 후 통도사로 진입

불지종가 국지대찰 영축총림 통도사